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5>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자

이번 아테네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박성현 선수가 마지막 한발을 쏘기 직전 사람들은 조마조마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관중들도 불안과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긴장했었는데 선수 본인의 마음은 더욱더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화살을 당기는 선수의 모습은 매우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손에서 벗어난 화살은 과녁을 향해 날아가 만점을 맞췄다. 만약 선수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실수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메달권 진입에 실패한 선수들 중엔 금메달을 획득할 것이라고 특별한 기대를 받았던 선수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세계의 그 어떤 선수보다도 뛰어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승 기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메달권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데 있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기대나 응원, 관중의 야유가 선수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선수가 평정심을 잃게 된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요

래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본래 만든 것이요 내가 본래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한다.' 부처님은 외부의 비난이나 모함에 분노나 증오로 대적하지 않고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부처님처럼 위대한 분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다른 이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쓴 소리가 들리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자기반성은 자기비하나 자기학대와 다른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칭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여래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로써 섬기고 존중하더라도, 여래는 그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여래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로써 섬기고 존중하면, 여래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지혜가 있고 번뇌를 단절하였기 때문에 이런 보답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칭찬의 근거가 되는 자질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부처님이 라는 한 인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미덕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위협에 빠진 아이

비난·모함 받으면 자신에게서 원인 찾아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진실만 추구할 것

하게 되면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런 실수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선 틀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전에서 부처님을 칭찬하는 글도 찾을 수 있지만 부처님을 비방하는 의도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경전에 기록된 비방의 이야기 말고도 실제로 부처님을 면전에서 비방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의도들이 사해하며 붓다나 그의 가르침, 그의 제자까지도 비방했었다. 부처님은 이런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중아함경>의 <아리타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모든 사문 법지들은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여 '사문 구단은 중생을 다름만한 자력이 없다. 그는 진실로 범부 중생이며,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다. 저 여래는 현재에 있어서 근심이 없다고 거짓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래를 몹시 욕하고 매질하고, 꾸짖더라도, 여래는 그 때문에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결단코 그를 해칠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여래를 몹시 욕하고 매질하고, 꾸짖으면, 그 때 여

래의 생명을 걸고 구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 것이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나를 칭찬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나의 선행을 칭찬한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적절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면 당하던 사람이 굴복하지 않고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적지 않다. 반대로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고 칭송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기대와 달리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인기를 얻은 나머지 너무 거만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반면에 비난이 다가 오면 분노하고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을 올려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며 생활하려고 부처님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란 너무나 변하기 쉬워 그 마음에 맞추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변덕스런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주위의 평가에 지나치게 반응하여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고 평상심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당대의 선사였던 정각 스님을 사봉하여 '판치생로' 화두를 참구한 정락 스님은 대중 설법을 통해 일상 속의 지혜와 실천을 일깨운다.



정락 스님

(수원 용주사 주지)

격을 형성하는 원리도 설명했다.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사하면서 '호지입니다' 또는 '호녀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인지 학교가 몇 년만에 모범학교가 되었다는군요."

정락 스님의 법문엔 이처럼 항상 재미있는 예화가 따라붙는다.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선(禪)적인 역설'이 보인다. 여기에는 역사지(易地思之)하는, 사람에 대한 동체대비심이 깔려 있다. 스님의 법문은 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마음속에 감춰진 행복 찾아라

"인도의 간디가 하루는 기차를 타러 역에 갔는데 막 열차가 떠나고 있어서 겨우 마지막 칸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철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출발한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버려야 할까요. 그 순간 간디의 선택은 나머지 한쪽 신발을 벗어서 먼저 떨어진 신발쪽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신발 한 짝만 주우면 쓸모가 없으니 아예 나머지가까지 던져준 것이지요."

정락 스님은 적어도 불자라면 간디가 처한 경우에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몸마저 망치는

행복의 열쇠 '역지사지'

"여러분, 생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흔히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생일은 어머니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를 낳아 주신 날입니다. 내가 축하받기 보다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날이지요." 8월 27일, 천천 사도제자에 대한 정조대왕의 애뜻한 효심(孝心)이 배어있는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 스님의 생일이 바로 '은혜 깊은 날'이라며 "효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자, 평상시에 늘 해야 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순의 노스님에게 육십대의 스님이 여쭙었습니다. '노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되는 거죠?' 그러자 노스님이 '안하니깐 안되지.' 했어요."

정락 스님은 아이들이 효도를 실천하는 일에도 실천력, 지속력,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장 큰 효도는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법론했다. 1996년 용주사 주지 소임을 맡은 후 효

생일은 부모 은혜 깊은 날

행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온 정락 스님은 어린이가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체적 건강은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지닐 때 좋아지며, 이에 기반한 사회적 건강은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스님은 초임 교사들을 위해 한 초등학교의 재미 있는 인사법을 소개하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인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상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간디처럼 우연히 신발을 잃게 될 사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신발을 던져준 것까지 잊어버리는 무심(無心)의 경지에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의 행복은 자신의 마음 속에 숨겨둔 여의주(如意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스님의 말씀은 삶의 행복은 물론 수행을 통한 열반의 성취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임에 분명했다.

"불교는 일체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사랑(慈) 연민(悲) 기쁨(喜) 평등(捨)이라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발합니다. 자(慈)무량심과 비(悲)무량심을 베푸는 보살의 수행은 그래서 자리와 이타

육 법 등 (六法燈)

의정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관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리동 290-1 **충만 및 대리점 모집**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古新堂 활성생활토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활성생활토란?

황토와 천연목재 추출 섬유질 및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활성생활토 반죽은 시공 후 자연건조과정을 거치면서 황토의 복층 구조내에 존재하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황토 원래의 기능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활성생활토 반죽은 적정 점착력의 황토 반죽으로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며 미려한 표면과 적절한 구조강도를 갖춘 실내적용 특수내장재이다.

활성생활토의 기능

원칙외선 방출, 세포작용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 능력 탁월)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활토는 탈취능력이 탁월

▶ 황토가 좋은 점으로서 또한 탈취성능을 들 수 있는데, 시멘트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 등을 없애주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제품의 양모나이에 대한 탈취능력은 초기농도 179ppm에서 120분 경과후 10ppm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이런 분들에게 활성생활토 제품을...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 두통환자
- 노약자, 신교, 알레르기 환자
- 숙취해소

활성 생활토의 효능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곰팡이 효과
- 항균·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칙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전자기파 차단

제품 색상 및 시공방법

- 황토, 나무 및 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내장재
- 우수한 탈취 능력, 습도조절능력, 보온, 단열, 방충능력 및 원칙외선 방출 능력이 있는 제품
- 적정 점도의 반죽 상태로 시공이 편리하고 특히 건조 후 표면 갈라짐이 없는 제품
- 용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이때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 가능
- 2-3mm 두께로 초벌 미장 시공 • 2-3일 자연 통풍 건조 • 충분히 건조 후 정판 및 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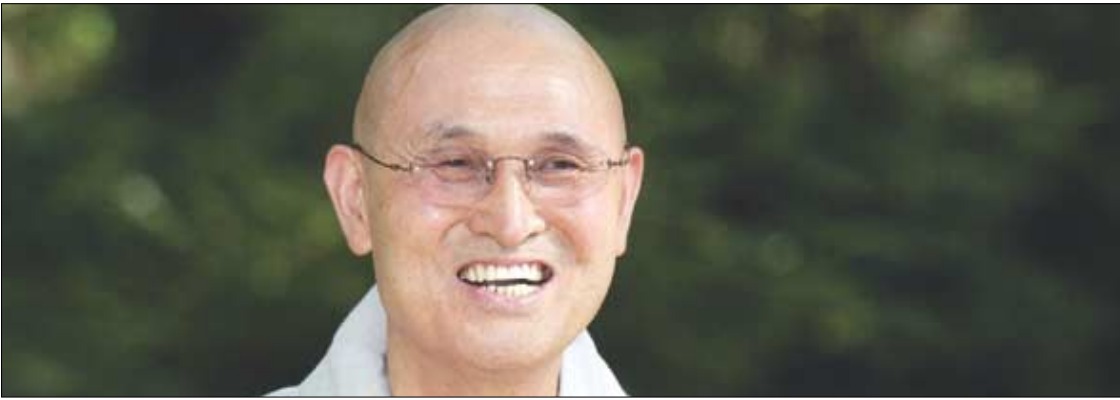
활성생활토시공

- 염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성분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마감재
- 갈라져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가능
-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와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화)가능

칠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냉방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천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ceo@ks7700.co.kr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 공무원 등을 상대로 효행교육을 하고 있는 정락 스님의 표정은 늘 밝고 편안하다.

행을 겸하는 것입니다.”

사무방심에서 조곤 없는 ‘무한한 사랑’은 동시에 다른 세 가지의 기초가 된다. 이 세상에 도덕이 안전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진실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이라. 스님은 가족과 이웃간의 생활윤리를 밝히 주는 <선생경(養生經)>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피면 수행과 이타행이 들어 아님을 알게 된다

“선생 장자가 매일 아침 깨닫기 목욕하고 육방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신 부처님은, 불법에서 말하는 육방에(六方禮)를 설하십니다. 부모는 동방이고 스승은 남방, 처자는 서방, 친족은 북방이며 이웃사람은 하방, 그리고 스승과 바라문은 상방입니다. 이런 모든 방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와 마음가짐(五事)을 설하십니다.”

정락 스님은 <선생경>에서 다섯 방위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의 사람이 바로 구도자 자신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중앙에 서 있는 수행자의 인격이 완성되면 육방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우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도가 되지만, 사람답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불효가 된다는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의 전진한 지혜를 담은 이러한 법문들은 삶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평상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물의 근본이치를 꿰뚫어 보는 선적인 역설과 통제대비심을 강조하는 법문들은 하루 아침에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전강(田綱, 1898-1975) 선사를

사봉하며 몸과 마음으로 저절로 터득한 장광설(長廣說)이라 할까.

“스승님은 직설적인 화법을 쓰셨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현실화시켜 보여주셨죠. 그분의 삶 자체가 불교여서, 잘못을 범했을 땐 무척 엄하셨지요.”

하루는 전강 스님이 새벽 3시에 정락 스님을 깨우셨다. “아야, 3시 예불시간이다. 일어나거라.”

수행과 이타행은不二

그런데 알고 보니 2시였다. 시계가 고장인 것이었다. 전강 스님이 “시계를 분해해 보거라” 하셨는데, 정락 스님은 스승의 명을 무심히 듣고 “시계 수리점에 시계를 맡기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아침 공양 후 전강 스님의 불효령이 떨어졌다. “너는 도를 닦을 사람이 아니다. 도를 위해서는 위험망구(爲法忘軀)할 자세가 돼야 하는데, 너는 이런 사소한 일도 거역하느냐?”

깜짝 놀란 정락 스님은 “스님, 제가 속가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버릇을 고치고 잘 하겠습니다.” 했다.

그러자 전강 스님은 “뭘 버리고 잘 한다는 게 이것도 분별심이라! 벌써 틀려먹었어” 하셨다.

여기서 정락 스님은 깊이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스승의 육성 법문 테이프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판자생모(板廠生毛) 화두를 쟁기는 한편, 한지도 나타함이 없이 전법도생(傳法度生)의 길에 매진하고자 하는 다짐이다.

정락 스님은 세간에서든 출세간에서든 마주한



수행과 전법이 들어 아님을 말하는 정락 스님.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생활하면 자연스레 지혜와 복력(福力)이 커진다며 쉬운 정진을 당부했다. “수행이 제대로 되면 탐욕과 어리석음, 화내는 마음도, 상(相)을 내는 마음도 모두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언행 하나하나가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범죄와 자살이 만연한 우리 사회, 민생을 외면한 쉬운 정지적 갈등, 국가 간의 폭력과 전쟁 등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스님은 “불교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얕만 보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정신없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록 불교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글=김재경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두타 스님

요즘은 사미니계를 수계한 일 년 이내에 강원이나 선원에 입방하고 4년을 수학해야만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기에 강원이나 선원이 초심자로 부적대지만 이런 강제규정이 없던 예전에는 선원이나 강원외의 기초과정도 마치지 않고 운수남자의 길을 걷는 초심자가 아주 많았다. 기초가 충실하지 않은 수행자가 많다는 것은 종단적으로나 수행자 개인적으로나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없는 자유방임형의 종단 풍토에서도 총림가풍의 정서가 강하게 배어있는 강원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끊임없는 구도열을 발산했던 스님이 두타 스님이다.

두타 스님은 나의 사형인데 본인이 극구 세상

날 선사들이 스승에게 받거랑하듯 하는 일이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사형 사제들을 긴장시키는 일이 많았다. 김장김치를 담글 때조차 양념이 바르게 들어가지 않으면 곧은 소리를 은사스님께 바로 하고, 은사스님이 풍정 소임을 보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 스님께 ‘못마땅하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 물론 두타 스님 자체가 욕심없는 일상생활로 완급을 잘 조절하면서 여법하게 정진하니 가능한 일이었다.

두타 스님이 원당암에 기거하게 되면서 사실 대중들은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면도 있다.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으면 누구에게 불뿔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두타 스님은 오로지 도(道)에 집중하며 도(道)를 떠난 삶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불뿔을 가리지 않고 즉설주얼로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자신을 관조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산다.

스님은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고자 탁발행각에 나서기도 했다. 종단에서는 탁발행각을 금지

원칙 벗어나면 ‘즉설주얼’ 공부 점검위해 탁발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자들도 조계종 스님들은 탁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탁발하기가 쉽지 않다. 스님은 해인사 아랫마을에서부터 탁발을 시작했다.

해인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리만큼이나 탁발도 어려워져 갔다. 어느 한곳을 선택해서 열불과 축원을 시작하면 도중에 시주가 들어와도 반드시 끝내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몇 군데 다니지 못해 벌써 탁발을 끝내야 할 시간이 되곤 했다. 개중에는 마치듯해서 시주를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불과 축원을 끝내고 난 뒤 반드시 시(시웃들)를 돌려준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시웃들은 삼륜이 청정해야 한다고 하셨다. 시주를 하는 사람과 시웃들과 시주받은 사람이 모두 청정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또 돈을 너무 많이(?) 시주하는 사람에게는 거스름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전부 되돌려 주기도 하니 어떤 이는 두타 스님을 불뿔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에 빠져서 탁발을 공치는 날도 많았다. 그런 날은 생식을 하기 위해서 과일 몇 개 사고 나면 치비가 없어서 해인사까지 걸어와야 하는 날도 있었다. 탁발하기도 바쁜데 이야기에 빠져서 는 것을 보면 마음이 여유롭다는 뜻이리라.

두타 스님만큼 탐 진 치 삼독을 버린다면 아무리 바쁜 세상만큼 여유롭지 않겠는가.

■ 해인사 원당암



그림·문병성

에 드러낼 것이 없다고 제방에 알려지는데 대한 스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름을 바꿔서 소개한다. 스님은 좀 별나다. 다른 사람들은 어서 빨리 강원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데, 두타 스님은 사람들의 이런 저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층에서도 사람들과 의견대립이 잦았고, 목불장근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타 스님은 행자생활도 해인사에 입산하기 전 이미 다른 곳에서 경험을 하고 해인사 행자실에 입방했다. 힘든 해인사 행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사미니계를 수지한 뒤에는 선방으로 곧장 가는 일심으로 정진했다. 그러다 느낀바가 있어서 후배들이 수화하는 강원외 방부를 들어서 초심자가 배우는 <치문>부터 수학했다.

그런데 2학년 과정인 사집을 끝내고 나서 다른 강원외의 차관반에 방부를 들어서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 행동만 보아도 두타 스님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바,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이미 형성돼 있었던 것 같다. 두타 스님은 은사스님인 해암 스님에게도, 옛

정락 스님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입을 올릴 위치가 아닙니다.”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처럼 명법문으로 이름난 정락(正樂) 스님이 유독 스승에 대해서만 말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아님 전강 스님의 망상외이자 사형인 송담 스님(인현 용화사 법보선원장)을 꾸짖어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송담 스님을 매우 존경하는 정락 스님은 울주사 주지에 재선되어 용화사를 찾아가셨을 때, 송담 스님이 ‘은사스님의 제자라면 주지 소임도 잘 해야 하지만, 절대 본분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활속의 선법문’ 대중 인기 한몸에

늘 공부를 놓지 말라’고 한 가르침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고 한다. 정락 스님은 스승님의 법을 이은 분이 송담 스님이기 때문에 전강 선사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법에서나 생활 속의 적절한 예를 들며 하는 ‘쉽고 감동적인 법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스님은 전국의 사찰은 물론 정부 각 기관과 민간 기업체에 초청되어 수시로 강연한다. 그때마다 스님의 ‘생활 속의 선법문’에 참석자들은 바수를 아끼지 않는다. 스님의 전진한 지혜를 담은

법문들은 삶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선적(禪)적인 역설과 보살의 자비심을 담고 있기에 시민들에게 웃음과 안심을 주는 생활법문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1939년 10월7일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정락 스님은 20세 되던 해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을 77년부터 81년까지 지냈다. 83년 1월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소임을 맡았고, 94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포교에 앞장섰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은행석온열복대

수험생에게 최고

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기**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70°C 이상의 강한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및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결림등을 자연치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 3대명산품으로 소량만 생산되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세계최고의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은행석 베개볼, 은행석 목걸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석을 베개속에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되며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하안압증도 마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다섯시간만 주무셔도 여덟시간 전것과 같은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늘~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작용하는 은행석 목걸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깨, 목의 뻣근함을 부드럽게 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의자에 장시간동안 앉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허리교정, 디스크 치료 및 부족한 기억회복 ※ 허리통증 완화 ※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수면이부족한 수험생 (특히 여학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주)금강닥터(02)3210-3170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합격기원 디지털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시 부처님의 자비로 합격의 영광을

최고의불경! 선물로도 최고!

룸비니는 담배 꽂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할, 높은 산 등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합격 기원을 위하여 기도 정진시 디지털 불경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 하시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불자님에게 대광명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심금을 울린 효동선가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합격기원 300set 특별할인판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면 수호신역할도 해 주실것을 믿고 있습니다. (규격 8.5×5.2×2.0cm) 가격 58,000원) 목걸이 : 요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격 : 20,000원 C D : 2ea set 가격 : 10,000원

● **패키지1:** 디지털불경 룸비니, CD2개 테이프 8개, 특별가 58,000원 (팩키지1에서 테이프 3개시 50,000원)

● **패키지2:** 디지털불경 룸비니 CD 1개 특별가 39,000원

● **문의전화:** 02)3210-3178

● **입금계좌:** 농협 (1143-12-049474 송명희)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수험생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합격의 영광을 금강 필승 염주

합격적척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다.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금강필승염주를 수험생방 또는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氣로 신기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필승염주입니다. 북한외의 세계최고 금강약석이 주성분이며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강현음이 들어 발산되어 건강에 최고이며, 북한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금강염주입니다.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선물로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 수월기간에 금강염주1set를 구입한 분에게는 은행석 베개볼 1인분을 증정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2단주, 108, 손목염주 225,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2단주, 손목염주 110,000원
※ 별도 구입시 가격표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장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분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예비를 찾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건강(病)이 약하신 분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정만사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 합니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음동 177 (대행 B/D 406호)
전국대리점모임 사법배경, 불교공공품, 개인사업자